

글로·루는 항복한 연수

감동과 신뢰의 성과 행정 연수

등록번호	의회사무국 ~ 3530
기안일자	2017. 5. 31.
등록일자	2017. 5. 31.
공개구분	대중민 공개

의정담당	부회장 부의장	의장		
기재비	/ / / / /	0 / 0 / 0 / 0		
협 조				

공무국외 연수결과보고



연 수 구
의회사무국

- 2017년도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

공무국외 연수결과 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INCHEON METROPOLITAN YEONSU-GU

의회사무국



목 차

I . 연수목적	4
II . 연수개요	4
III . 추진과제	5
IV . 주요연수내용	6
V . 연수성과	10
VII . 기타자료	11

2017년도 이재정부의장

공무국외 연수결과 보고서

- 미 국 -

I

연수목적

- 세계화·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의 문화, 관광, 교육 등의 현장 견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 국외 연수를 통한 의원의 견문을 넓혀 의회 업무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접목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II

연수개요

- 일정 : 2017. 4. 27(목) ~ 2017. 5. 9(화) (11박13일)
- 연수국가 : 미국
- 연수인원 : 1명
 - 연수구의회 의원 : 부의장 이재정
- 소요예산 : 2,500천원(개인부담 별도)
- 주요 방문일정

연수국가	미국						
방문일자	04. 27(목)	04. 28(금)	04. 29(토)	04. 30(일)	05. 01(월)	05. 02(화)	05. 03(수)
도착지	디트로이트	시카고	디트로이트	시카고	시카고	시카고	원저
기관방문 등	시내문화체험	미시간대학	근교관광	근교관광	시카고시청	오크파크답사	시내문화체험

연수국가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방문일자	05. 04(목)	05. 05(금)	05. 06(토)	05.07(일)	05. 08(월)	05.09
도착지	나이아가라	토론토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인천공항
기관방문 등	나이아가라 관 광	시내문화 체 험	마셔스공원 견 학	포드루주 공장투어	시내문화 체 험	귀국

III

추진과제

1. 중점 추진과제

구 분	개 요	주 요 내 용
미시간대학 방 문	◆ 취지 : 학업 시스템 구성 및 특색 운영 현황 수집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및 향상	◆ 교육현황자료 수집 ◆ 교육 경비 집행자료 수집 ◆ 교육 환경조성자료 ◆ 특수 운영자료 수집
토론토대학 방 문	◆ 취지 : 특수운영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구 교육관련 개선 및 환경조성	◆ 교육현황자료 수집 ◆ 교육 경비 집행자료 수집 ◆ 교육 환경조성자료 ◆ 특수 운영자료 수집
토론토시청 및 시의회 방문	◆ 취지 : 의원 민원처리현황 및 운영 현황 수집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 향상 기여	◆ 민원처리현황 수집 ◆ 의원 구성 및 운영 현황 ◆ 특수시책 등 자료 수집

2. 기타 추진과제

구 분	개 요	주 요 내 용
헨리포드 기념관 방문	◆ 방문취지: 자동차 왕 헨리포드 기념관을 통한 우리 구의 특색 있는 박물관 신설 계획 및 조성 추진	◆ 기념관 조성 현황 및 운영 실태 수집 ◆ 관광 수요·공급 방안 강구
시카고 유람선 견학	◆ 방문취지: 유람선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유원지 및 향후 유람선 운영 계획 검토	◆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나이아가라 관광 단지	◆ 방문취지: 폭포 조성 및 관광 운영 현황 자료 수집으로 관광 문화 조성 및 개발	◆ 운영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 시 참고자료 반영
디트로이트 호수 견학	◆ 방문취지: 호수 문화 견학을 통한 주민 휴식 공간 마련	◆ 시민 휴식 공간 현황 및 호수 이용 등 자료 수집

IV

주요연수내용

1. 공식일정

① 미시간대학 방문

- 방문 일시 : 2017. 04. 27(목) ~ 04. 28(금)
- 방문 장소 : 미국 엔아비 미시간대학
- 참석자 : 국외연수자 이재정부의장
- 관련사진



② 토론토대학 방문

- 방문 일시 : 2017. 05. 05(금)
- 방문 장소 : 토론토내의 토론토대학
- 참석자 : 국외연수자 이재정부의장
- 관련사진

토론토대학	토론토대학
	

③ 토론토시청 방문

- 방문 일시 : 2017. 05. 05(금)
- 방문 장소 : 토론토내의 토론토시청
- 참석자 : 국외연수자 이재정부의장
- 관련사진

토론토시청	토론토시의회
	

④ 그 밖의 관광단지 견학

1) 시카고 유람선 견학

- 방문 일시 : 2017. 04. 30(일) ~ 05. 01(월)
- 방문 장소 : 미시간 호, 시카고 해안, 시카고 유람선
- 참석자 : 국외연수자 이재정부의장
- 관련사진

시카고 유람선	시카고 해안선
	

2) 나이아가라 관광지 견학

- 방문 일시 : 2017. 05. 04(목) ~ 05. 04(목)
- 방문 장소 :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호수
- 참석자 : 국외연수자 이재정부의장
- 관련사진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3) 헨리포드 기념관 견학

- 방문 일시 : 2017. 05. 06(토)
- 방문 장소 : 디트로이트내 헨리포드 박물관
- 참석자 : 국외연수자 이재정부의장
- 관련사진

헨리포드 기념관	헨리포드 기념관
	

4) 디트로이트 호수 견학

- 방문 일시 : 2017. 05. 07(일)
- 방문 장소 : 디트로이트 내의 호수 견학
- 참석자 : 국외연수자 이재정부의장
- 관련사진

디트로이트 호수	그 외 호수
	

5) 포도주 공장 견학

- 방문 일시 : 2017. 05. 07(일)
- 방문 장소 : 디트로이트 내 포도주 공장
- 참석자 : 국외연수자 이재정부의장
- 관련사진



V

연수성과

- 선진 외국의 대학방문에 따른 교육 경비 등 운영 실태 자료 수집을 통한 제도적인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도모
- 선진 외국의 문화 시설 및 관련 활동을 통한 문화관광 서비스, 자원 개발 등 문화관광 활성화 방법 모색
- 기타,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실태 관련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한 구민 복지 증진과 토대로 구정 반영 및 기여도록 유도

미시간대학교

University of Michigan

수업료 USD 22,541~ (2016)

학생 수 학부: 27,979명, 대학원: 12,714명(2013)

설립	1817년
유형	공립 종합대학
국가	미국
소재지	미국 미시간 주 남동부 앤아버
사이트	www.umich.edu

약 1817년 디트로이트에서 예비학교로 시작해서 1837년 앤아버로 이전했다. 1841년부터 대학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구적인 연구 중심 대학교로 손꼽히고 있다. 1956년 플린트에, 1959년 디어본에 분교가 문을 열었다.

모릴 법에 따라 세워진 랜드 그랜트(land-grant) 학교는 아니지만 1826년과 1836년에 연방정부로부터 무상불하토지를 받았다. 의도적으로 유럽, 특히 독일의 모델을 채택하고 교수교육(teaching education)을 육성하기도 했던 의욕적인 총장인 H. P. 태펀(1852~63)과 J. B. 에인절(1871~1909)의 재임기간에 미시간대학교는 고등교육을 확충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앨러게니 산맥 서쪽에서 최초의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1868년에는 흑인에게, 1870년에는 여성에게 처음으로 입학을 허가했으며 에인절은 대학교를 재조직하여 모든 주요전문학부와 대학원을 포함시켰다. 그는 또 선택과목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변경시켰다.

이 대학교는 여러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및 예술대학 등의 단과대학들이 있고 건축·예술·경영학·치의학·교육학·공학·법학·도서관학·의학·음악·천연자원·간호학·약학 및 공중보건과 사회사업에 관한 전문학부가 있다.

특수시설 및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조사연구소, 조사연구센터, G. R. 포드 대통령 도서관, 피닉스 실험실(2MW용량의 원자로를 갖춤), 병원단지, 방송국, 우주항공공학연구소, 선박설계 실험용인 저수지 오대호 조사선 및 조사 비행기, 박물관, 미시간과 하와이에 있는 태양연구관측소 등이 있다.



토론토대학교 University of Toronto

설립	1827년
유형	공립 종합대학
설립자	영국 성공회
소재지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
사이트	http://utoronto.ca/

수업료 CAD 33,320~ (2016)

학생 수 학부: 86,709명 (2015)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주도인 토론토에 있는 공립 종합대학. 1827년에 설립되었다. 토론토 곳곳에 3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최대 규모의 대학 중 하나이다.

토론토대학교는 영국식 모델을 본떠 여러 대학이 연합체 형태로 이루어진 학교이다. 미국식 모델을 본떠 학부·전문교육대학·연구소·센터·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복잡하고 독특한 캐나다 대학 체계를 통해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전신은 영국 성공회가 어페캐나다 지방의 요크(지금의 토론토)에서 설립한 킹스칼리지로, 이 학교는 1827년에 영국 국왕의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1843년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1850년 극심한 종교적·정치적 논란을 겪은 후, 비종파 학교가 되었고 현재의 토론토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1853년 대학교 자체가 시험 및 학위수여 기관이 되었고, 그에 반해 교수기관으로 유니버시티칼리

지가 설립되었다. 1887년, 연방법에 따라 대학교가 교수기능을 되찾았으며 여러 개의 고등교육기관과 제휴하게 되었다.

토론토대학교 및 유니버시티칼리지와 제휴하고 있는 기관은 빅토리아(캐나다 연합교회), 트리니티(영국성공회) 및 세인트마이클(로마 가톨릭) 등 교회와 관련된 3개의 자치 대학교와 대학원인 온타리오교육학연구소, 남자 대학원생 기숙 대학인 매시대학, 그리고 엠마누엘(연합교회), 위클리프(성공회) 및 뉴스(장로교) 등 3개의 신학대학들이다.

2015년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 34위, 영국 일간지 <타임스 The Times>가 실시하는 THE(Times Higher Education) 세계 대학 순위에서 19위,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학이 발표하는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25위로 선정되었다.

토론토대학교는 토론토 중심에 위치한 세인트조지 캠퍼스를 비롯하여 1967년 설립된 미시소거 캠퍼스, 1964년 설립된 스카보로 캠퍼스 등 3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다. 2016년 현재 3개 캠퍼스에 7개 단과대학, 다양한 학부·대학원 과정 및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는 공학응용과학·건축설계학·인문과학·음악대학·산림대학·교육대학·체육대학·경영대학 등이 있고, 대학원으로 정보학대학원·치의학대학원·의학대학원·간호대학원·보건대학원·약학대학원·법학대학원 등이 있다. 다운타운토론토 캠퍼스에는 이니스·뉴·세인트마이클·트리니티·유니버시티·빅토리아·우즈워스 대학 등 7개 단과대학이 있다. 미시소거 캠퍼스는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정보과학 등의 분야를 전공하는 15개 학과와 148개 교과과정, 90개 연구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스카보로 캠퍼스는 3개 캠퍼스 가운데 유일하게 재학 중 현장에서 인턴십을 경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인 Co-o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토대학교는 왕립음악학교, 벤팅앤드베스트 의학연구소, 콘노트 연구소(1921년 이곳에서 프레더릭 벤팅과 여러 사람이 발견한 인슐린을 제조함), 교황청 설립 중세 학문 연구소(세인트마이클대학교의 칼리지) 및 캐나다의 주요 출판사 중 하나인 토론토대학교 출판사의 본산지이기도 하다. 토론토대학교와 관련 연구기관에는 총 600만 권 이상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1,200만권이 넘는 장서가 보유된 44곳의 도서관은 캐나다 유일이자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와 예일대학교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주요 동문으로는 전 캐나다 총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레스터 피어슨, 3번이나 캐나다 총리를 역임한 윌리엄 라이언 메킨지 킹, 인슐린을 발견하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프레더릭 벤팅, 배우 도널드 서덜랜드 등이 있다.



토론토시청*Toronto City Hall*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가장 발전된 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이다. 캐나다의 금융 및 상업 중심지이며, 미국과의 경계를 이루는 온타리오 호의 북쪽 끝에 접해 있는 입지조건 덕분에 세인트로렌스 수로를 통해 대서양과 연결되고, 오대호를 통해 미국의 여러 주요 공업 중심지와 연결되어 주요 국제교역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이 도시는 거의 전 지역이 평원지대이다. 토론토의 기후는 온타리오 호로 인해 다소 완화되기는 하지만 기온이 여름에는 32°C 이상으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18°C 이하로 떨어진다.

토론토는 온타리오 주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원자재인 광물·목재·농산품과 수력 에너지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도시와 그 주변에서 캐나다 공업제품의 절반 이상이 생산되며, 토론토 항은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제조품의 대부분을 취급한다. 토론토 증권거래소는 서반구의 주요 주식거래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밖에 건설·운송·금융·행정·휴양·관광 또한 주요산업들이다.

토론토의 거리는 온타리오 호의 호안 도로에 맞춰 약간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중앙 업무지구는 블루어가·퀸가·영가의 교차로 일대에 있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와 많은 보험회사와 은행들의 본사가 있는 금융지구는 옛 시청 자리 남쪽의 킹가 와 베이가의 인접지역에 있다. 도심에는 CN 타워, 사무실과 은행으로 이루어진 단지인 토론토 도미니언 센터와 상사법원 등이 있다. 1958년에 세워진 새로운 시청 건물은 핀란드 건축가 빌요 레벨이 설계한 것이다. 업무지구 북쪽에는 고급 상가지역이 있다. 온타리오 주 의사당 건물과 온타리오 대학교는 공원 같은 분위기로 유명하며, 거목과 초지로 뒤덮인 블루어가 남쪽에 있다. 로즈데일은 가로수와 훌륭한 저택들이 늘어서 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다.

1950, 1960년대에 토론토의 인구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인구팽창기간에 독일·이탈리아·폴란드·그리스·포르투갈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몇몇 이민단들이 이주해왔다. 1960년대에 이르자 도시인구 가운데 영국계가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며, 이들은 이 지역의 특성을 많이 변화시켰다. 1970, 1980년대에는 아시아와 서인도제도에서도 많은 이민들이 왔다. 다양한 외국 문화와 요리법은 식당, 접대양식, 기타 여러 가지 문화활동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대륙에서 분위기가 가장 침체되었던 토론토는 10년 만에 가장 활기 넘치는 도시로 변모되었다. 새로운 이민의 유입은 토론토가 온타리오 제일의 문화 중심지이자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의 하나로서 지니고 있던 원래의 역할을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토론토에는 많은 소규모 실험극장뿐만 아니라 몇 개의 주요극장들이 있다. 오페라와 발레단들은 특히 겨울에 활동이 많고, 토론토 교향악단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온타리오 미술관과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에는 훌륭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주요 고등교육기관으로는 토론토대학교·요크대학교·라이어슨 종합기술대학 등이 있다. 토론토의 문화 전당이 되어 있는 다른 대표적인 두 곳은 온타리오 과학 센터와 온타리오 플레이스이다. 온타리오 플레이스는 호수 안에 만든 인공 섬 위에 설치한 오락시설단지로, 상설 캐나다 국립전시장의 연장이다. 연중 벌어지는 전시회에서는 국제항공전시회, 농업·동물·원예 등의 전시회, 연극 및 음악 행사 등이 펼쳐진다. 매년 늦여름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지하철이 남북과 동서로 뻗어 있으며, 유료 고속도로망이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 북부, 미국의 뉴욕·미시간 주와 이어준다.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토론토 국제공항이 있다.



토론토 시의회



토론토시에는 인구 260만에 44명의 시의원들이 있고 광역 토론토는 인구가 550만이 임. 의회의 회의는 밖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기 앉아 있는 의장은 3선의 여성입니다.

시청 2층에 있는 44개의 의원 실이고 의원의 월급은 10만 불이 넘는다니까 연봉 1억이 넘는 것이 사항이고 매년 2억 3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따로 의원에게 지급하고 필요한 인력을 마음껏 쓰라고 한답니다.

보통 보좌관을 3명 이상씩 두고 있음.

의원들은 끔찍하게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며 토요일 일요일도 없다 실정임..

의원 실 앞에 놓여 있는 의정보고서로. 의정보고서를 만들던 말던 상관없는 우리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분기별로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렇게 의원이 고용한 직원들이 신문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다가와서 기획사에 맡겨하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오늘 special meeting에 관한 agenda를 받아와서 집에서 읽어봤습니다.

이들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도 있더군요.

일단 전문 위원의 보고라 할 만한 것들도 들어 있어요.

오늘은 공식의 시의원을 뽑는 날 이었기 때문에 후보들의 자기소개서가 두껍게 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으면 정말 놀랐던 것은 눈도장 찍고 전화 자주하며 지역구민들에게 익숙해져서 뽑히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조세정책에 대한 자기의

연구보고서를 첨부했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 예산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몇 장에 걸쳐 설명 합니다.

자신을 30대 중반의 결혼을 앞둔 젊은이라고 소개한 이 사람은 전 시의원의 정책을 찬양하며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직원들과 잘 융화해서 그의 정책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외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봉사 했나 언론보도를 인용한 후보들도 많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알찬 내용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몇 개월 공석을 채우겠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진지하군요. 모두들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 나라 시의원들은 동네일을 하는데 무슨 당이 필요 하냐~ 그래서 당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시의원들! 23만불은 직원을 고용하라고 주는 돈이라고 합니다. 전국여성의원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헨리포드 기념관

미국 디트로이트에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다. 그 기념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그 꿈을 돋는 자였다." 포드의 아내가 주급 20달러를 받으면서 일할 때 포드는 5달러의 주급을 받았고, 포드가 마차가 아니라 기계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그마저도 일을 그만뒀을 때 한 마디의 실은 소리도 하지 않았다. 늘 그 꿈을 믿고 내조했던 아내는 격려했다. 포드의 아내가 없었으면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말은 생기지 않았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꿈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질 확률은 더욱 커진다.

희망찬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집은 풍요롭고 행복한 집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I. 자동차 왕, 헨리 포드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

1896년 5월 쿼드리사이클 개발.

1903년 포드자동차회사 설립.

1908년 포드 T형 자동차 개발.

1913년 포드시스템 확립.

1936년 포드재단 설립.

현대 사회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자동차"

II. The Dreamer

The Dreamer (헨리 포드 기념관)

당시 배경(1900년대 초)

- 열악한 고속도로, 가솔린 부족, 자동차는 특정 부유층의 소유물이라는 인식.

But 대중들이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자!
"새로운 상품을 위한 자리는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선례가 없다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

III. 헨리 포드의 성장 배경

- 1863년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의 한 농가에서 출생
- 12살 때, 석탄으로 작동하는 증기엔진 처음 목격.
→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리라 결심!
- 17살 때 디트로이트로 이주.
- 1876년 미시간 차량회사기계제작소 근무.
- 1885년 가스기관에 관심을 갖고 개선 작업에 착수.

증기기관, 자동차 동력으로 부족함 → 가스기관 연구 시작!

IV. 헨리 포드의 경영 방식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훤히 끄적이고 있지만 정작 어 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내놓는 것이 없다." -헨리 포드-
"나는 잘나가는 전문가를 절대 쓰지 않는다"

헛똑똑이 - 뭔가 해보기도 전에 안 되는 이유만을 늘어 놓는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 -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람.

V. Why를 넘어 How를 생각하라!

- 1893년 2기통짜리 가솔린엔진 완성.
- 1896년 4륜마차에 2기통 가솔린엔진 장착 → 쿼드리사이클(Quadricycle) 완성.
- 1903년 15만 달러로 포드 자동차회사 설립.
- 1908년 포드 T형 자동차 개발.

헨리 포드의 목표 - 부자들의 기호품이나 경주용으로만 인식되던 자동차를 대중의 필 수품으로 만드는 것!

VI. 포드의 생산방식

- 1913년 컨베이어 벨트 생산방식 도입 → 자동차 대량생산에 성공!
- 포드 T형 자동차, 20세기 미국인들의 삶을 180° 변화시키다!
- 1920년대 헨리포드 리버루지(River Roosi) 공장, 하루에 자동차 7500대 생산!
- 포드 T형 자동차 가격 -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하락!
1908년 대당 940 달러 vs. 1925년 대당 260 달러
- 20여 년 동안 1574만대 이상 판매!

VII. 열정의 사업가

"나는 일보다 돈 문제를 우선시하거나, 은행가나 자본가들만 설치는 회사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미래는 도전의 대상일 뿐,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할 기회!

VIII. 헨리 포드의 신념

"시각의 전환이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조 한다"

- 자동차의 대중화와 대량생산 시스템 개발.
- 고객은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하고 발명하며 창조하는 것!